

이코노&비즈 피플

김재수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나주를 농업 부가가치 높이는 한국형 푸드밸리로”

농업도 이제 생산중심에서 벗어나
치료·관광농업 등 6차산업으로 가야
K-Food 프로젝트 농식품 수출 확대



“우리 농업도 이제는 생산 중심의 먹는 농업에서 벗어나 기능성 농업과 치료·관광농업, 수출농업 등의 미래형 6차 산업으로 나아가야 하며, 패러다임도 새롭게 바뀌 나가야 할 겁니다.”

최근 연임을 통보 받고 연장 업무에 들어간 김재수(5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농식품 수출과 유통개선, 농산물 수급안정과 식품산업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 사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도 그렇듯이 김 사장의 연임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명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모든 업무 추진에 있어 ‘창의와 혁신’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직원들은 괴로웠을 것이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낸 3년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해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거래액 1조6000억원을 달성했으며 농식품 수출액 80억달러 수준으로 늘었고, 선제적 수급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요 채소류 가격변동률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글로벌 K-Food 프로젝트를 통한 미국·중국 농식품 수출 시장 확대와 한국출판 최초경매를 언급하며 농수산물의 가공·유통과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3년간의 농업분야 공직생활을 두루 거친 농정전문가인 그는 농수산업이 발전하려면 생산보다 가공·유통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도심에서 쉽게 키우는 난초 하나가 유통만 잘된다면 큰 사업이 되고, 그 자체로 힐링의 최적지인 농촌은 건강식품 제공과 관광산업의 주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농업 관련 기관들의 조직이나 인프라, 예산이 1차 생산에 80% 편중돼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게 김 사장의 판단이다.

그는 “1차농산물 수출은 시간적 제약이 많고 부가가

치가 낮아 한계가 많다”며 “가공품 수출체제로 바꾸고 1·2·3차가 결합된 6차산업을 규모화하는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중FTA가 타결됐고 모든게 자유무역으로 가는 불가피한 선택의 상황에서 농업의 패러다임도 새롭게 바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aT가 새로 자리잡은 나주부터 선학관연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국형 푸드밸리’로 육성해나갈 것임을 포부도 밝혔다.

그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단지인 ‘푸드밸리’처럼 나주에 ‘한국형 푸드밸리’ 모델을 구축하려 한다”면서 “전남의 여러 연구소와 aT가 연계해 고급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을 늘려나가는 등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늘려가면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전남에 모여든다.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다양한 유인책을 모색해야 농촌의 미래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난 달 본격적인 배 수확철을 앞두고 대미수출 현장인 나주배원에농협 선과장을 찾아 검역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공사와 함께 미주지역 공동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다”며 “지역민들도 따뜻한 눈으로 공사를 봐주고 동반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바라는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요청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영양 태생인 김 사장은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석사, 중앙대 경제학 박사 등을 취득했다.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농수산물유통국장, 주미한국대사관 농무관, 농업연수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물부 제1차관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통' 시행 첫날인 지난 17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후강통 개통식'이 열려 새로운 자본거래 시장의 개막을 알렸다. /연합뉴스

‘후강통’ 관심 후끈 中 본토 투자 상품 붐물

전 세계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후강통’효과로 중국 본토 A주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과 대신증권은 다음 달에 중국 본토 A주에 투자하는 랩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 본토 투자 랩 상품은 적격외국인 기관투자자(QFII) 자격을 가진 각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해 운용해주는 것이다.

하나대투증권은 다음 달에 1억 달러

하는 ‘KB중국본토A주 펀드’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중국 본토 기업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도 속속 나오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5일부터 중국 본토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동양차이나본토채권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전날 신한BNP파리비자신운용도 ‘신한BNPP 위안화본토채권펀드’를 내놔 한국운용은 중국 주요 국유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한국투자 달러표시 중국 국유기업 목표 전환형 펀드(채권혼합)’를 선보였다.

유안타증권의 한 관계자는 “법인투자자가 주로 찾는 기존 채권형 펀드와는 달리 중국 본토 채권펀드에는 소액 개인 투자자도 자신감도 포트폴리오 편입 차원에서

하나대투, 다음달 ‘본토 1등주랩’ 선포
삼성자산운용, 차이나 2.0펀드 내놔
중 본토 기업 채권 투자 펀드도 나와

(1100억원) 규모로 중국 본토 1등주에 투자하는 ‘본토 1등주랩(가칭)’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도 최근 중국 상하이 A주의 고배당주와 소비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아이엠 유 랩-후강통 고배당플러스’를 출시했다.

중국 본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시선을 끈다.

삼성자산운용은 중국 본토 대형주에 투자하는 ‘차이나2.0펀드’와 H주, 홍콩, 대만 등에 투자하는 ‘차이나펀드’, 본토 A주의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중소형펀드 등 10여개의 관련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한국투자신운용도 중국 본토 A주에 투자하는 ‘한국투자 KINDEX 중국본토CSI300 상장지수펀드(ETF)’를 판매하고 있다. KB자산운용도 중국 본토 A주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홍콩 시장을 거쳐 직접 중국 본토 A주 종목을 사들일 수 있는 후강통은 시행 첫날 큰 인기를 끌었다.

전날 후강통은 거래량도인 130억 위안(약 2조3천억원)이 일찌감치 마감돼 조기에 마감됐다. 국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최소 100억원 이상이 후강통을 통해 중국 주식시장으로 들어갔다.

증권사들은 중국 최대 화장품 업체인 상하이자화(上海家化)와 유제품 1위 업체인 내이멍구이리(内蒙古伊利), 여행사 중국국제여행(中國國際), 증류주 업체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台), 의약품 업체 텐스리(天士力), 강위안(康緣)제약, 대표적인 IT기업 텐진(騰訊·텐센트) 등을 투자유망주로 추천했다. /연합뉴스

“올 경제성장률 3.5%... 내년 3.7% 소폭 상승 전망”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내수 부진 등 구조적 저성장 위험 지속”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8일 ‘국내의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3.7%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활성화 대책에도 내수 회복세는 미약하다”며 “올해는 성장률이 상반기 3.7%, 하반기 3.4%의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면서 연간 3.5%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다만 “정부의 확장적인 경제정책 운용이 지속하고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수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내년에는 글로벌 수요 회복이 더해져 성장률이 3.7%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3.7%는 기획재정부(4.0%), 한국은행(3.9%)의 전망치보다 낮다. 연구소는

“수출 회복의 지연 가능성, 구조적 내수 부진의 지속 등이 내년 국내 경제의 회복 위험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원리금 상환 부담과 주거비·사교육비 상승 등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도 미흡하다”며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 조치도 이런 구조적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총수출 증가율이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힘입어 올해 3.6%에서 내년 5.3%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본 엔화까지 약세에 따른 주력 품목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대중(對中) 수출 부진의 구조화 가능성 등이 수출 회복의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꼽았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올해 2.0%에서 내년 3.1%로 다

소 개선될 것으로 점쳤다. 다만, 임금 상승률의 둔화와 질 낮은 일자리 증가 등으로 소비 회복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설비투자과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5.9%와 2.7%에서 내년 6.0%와 3.7%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1%대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과 농산물 가격 하락세 진정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는 연내 2.00% 수준에서 동결되었지만,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시장금리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관측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평균 달러당 1050원에서 내년 1,060원으로 오르는 가운데 원·엔 환율이 100엔당 995원에서 920원으로 하락하고, 특히 내년 4분기에는 100엔당 875원까지 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용자1억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량있음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선전차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원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밀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

010-6832-9700

경매 무료 교육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반

이제 경매가 대중화 시대
교육화 실전가능

010-6832-9700
062)513-4900

경매 무료 교육

상무지구 12월 1일

12월 1일 오픈(상무지구)

기본반
고급반
실전반

010-6670-9800
062)382-5500

오피스텔 매매 (수익상가)

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할인 -> 1억1천

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

3.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

4.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정원 오피스텔 3층 32평
매가 1억1천만
(보1천, 월70만, 용5천만)

062)527-76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780㎡, 건 1992㎡)
감정가 24억 최저가 13억
- 광주 서구 화정동 (토지 171㎡, 건 501㎡)
감정가 27억 최저가 19억
- 광주 서구 화정동 (토지 372㎡, 건 1255㎡)
감정가 10억 최저가 5억7천
- 광주 동구 동명동 (토지 838㎡, 건 2190㎡)
감정가 17억 최저가 11억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 1599㎡, 건 17380㎡)
감정가 223억 최저가 156억
- 광주 남구 주월동 (토지 236㎡, 건 594㎡)
감정가 4억5천 최저가 4억5천

토지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3974㎡)
감정가 45억 / 최저가 25억
(상업지역, 최고위치,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적합)
- 광주 북구 매곡동 (토지 579㎡)
감정가 1억 / 최저가 5천 800

경매회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952-5584